

Fixed Income

Fixed Income Strategist 공동락
dongrak.kong@daishin.com

日 기준금리 1.25%로 인상, 그러나 향후 경로는 점진적

- 日 기준금리 1.25%로 25bp 인상, 지난 6월에 이어 3개월 만에 추가 인상
- 예상됐던 인상이며 추가 인상도 이어질 것, 우에다 “2% 넘는 물가 관리”
- 다만 “급격한 인상의 부정적 영향 피할 것” 향후 인상은 점진적 경로 예상

일본은행(BOJ), 9월 기준금리 1.25%로 25bp 인상

일본은행(BOJ)이 기준금리를 1.25%로 인상을 했다.

일본은행은 9월 18일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1.00%에서 1.25%로 0.25%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의 최고 수준이며, 이번 인상은 지난 6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이번 결정은 전체 9명의 위원을 가운데 동결을 주장한 2명의 반대로 만장일치가 아니었다.

“2% 물가 목표를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정 적절”

BOJ는 “경제·물가 동향이나 리스크 요인, 금융 환경을 바탕으로 2% 물가안정 목표를 지속적·안정적으로 실현한다는 관점에서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BOJ는 “기업 임금 상승분을 판매가격에 전가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며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최근 완만하게 오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소비자물가의 기초적인 상승률도 2%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임금·가격 설정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초적인 물가상승률이 2%의 물가안정 목표를 넘어 추가로 높아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에 대해서는 “중동 정세 등 영향으로 일부 약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지만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다”라며 “글로벌 시 관련 수요 증가에 더해 각종 정부 정책 등이 경제를 뒷받침하면서 완만한 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환경에 대해서는 “완화적인 상태에 있다”라며 “실질금리가 중·단기 영역을 중심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BOJ는 “기초적인 물가상승률이 2%에 근접하고 있고 현재의 금융 환경도 완화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경제·물가·금융 여건에 따라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해 금융 완화의 정도를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금리 조정의 시기와 속도에 대해서는 “중동 정세와 시 관련 수요 확대, 환율 변동의 영향 등을 포함해 경제·물가의 기본 시나리오상 전망이 실현될 가능성과 각종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적 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 목표인 2%를 넘어서 상승세가 흔들릴 위험이 현실화하고 그것이 이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초적 물가상승률을 2% 안팎에서 안정시키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됩니다.

인상 기조이나 급격한 인상 부작용 경계. 연말 日 기준금리 1.25% 예상

일본은행은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시사하면서도 추후 인상의 속도나 시기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경로를 따를 것이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사는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은 꾸준히 이어지겠지만 현재 금융시장의 관심인 올해 중에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가능성이 제한적이라 판단(26년 말 일본 기준금리 1.25% 예상).

또한 이 같은 전망의 근거로 금리 인상 이후 이뤄진 우에다 총재의 회견 내용을 제시한다. 우에다 총재는 ‘지금까지는 물가를 2% 아래에서 끌어올리는 것이었지만 현재는 기조적 물가가 2%를 웃도는 위험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다만 “향후 인상 속도와 관련해 3개월에 한 번씩과 같은 사전에 정해진 구상은 없다”며 “매 정책회의에서 기조적 물가를 2%에서 안정시킬 최선의 방안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피할 것”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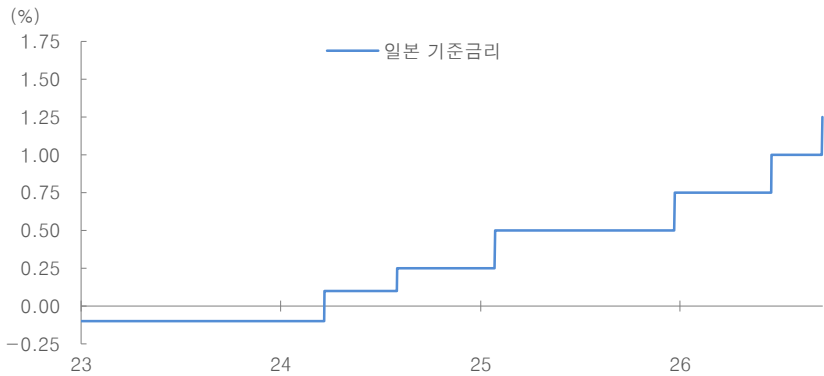
인상 이후 진행된 ‘레이트 체크’, 당분간 금리보다 직접 개입에 무게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지만 금융시장에서는 당장 추가 인상이 임박했다는 부담보다는 어느 정도 시차를 둔 점진적인 인상 무게가 쏠리고 있다.

이에 당장 주목해야 할 것은 급격한 앤 캐리 트레이드 청산 여부에 대한 판단인데 9월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당사는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견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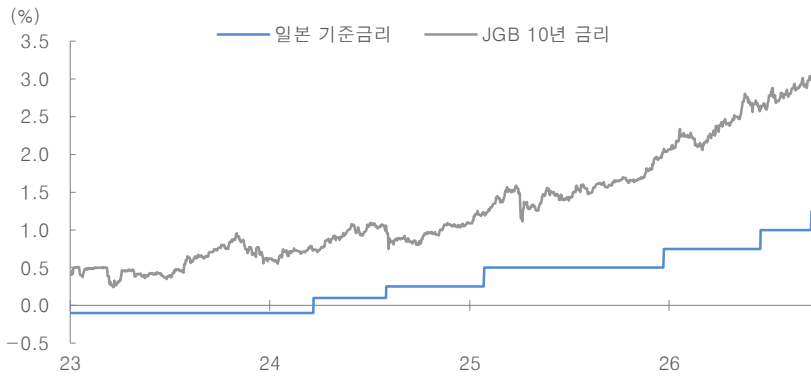
또한 기준금리 결정 이후 외환시장에서는 BOJ가 레이트 체크에 나섰다라는 소식이 언론들을 통해 전해졌는데, 이는 9월 금리 인상 이후 환율 대응은 기준금리보다는 직접적인 시장 개입의 경로를 따를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그림 1. 일본 기준금리: 9월 기준금리 1.25%로 25bp 인상



자료: 일본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일본 기준금리와 JGB 10년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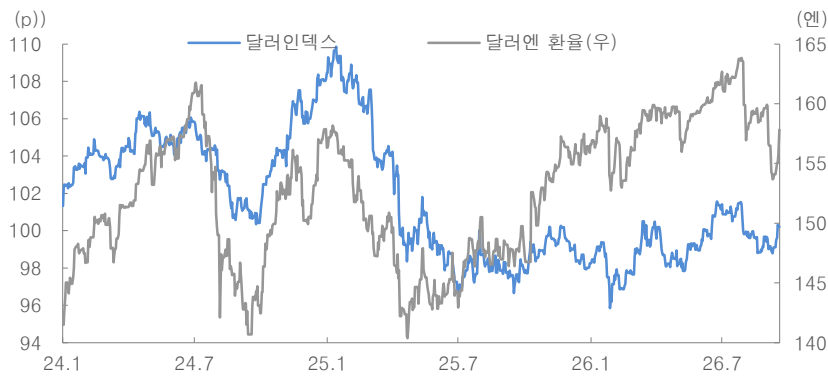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연합인포맥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일본 기준금리와 JGB 10년 금리, 달러엔환율



자료: 일본은행, 연합인포맥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달러 인덱스와 달러엔 환율



자료: 연합인포맥스,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 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공동락)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